

國際石油備蓄 管理推移와 今後方向

本調査資料는 30人 委員會가 발표한 報告書「國際石油市場의 將來」中 Energy Security Analysis 주간으로 있는 Edward N. Krappels氏가 기고한 「80年代 石油備蓄管理」를 중심으로 하여 國際石油市場의 備蓄推移와 그 特徵, 그리고 향후 先進國이 取하여야 할 備蓄政策에 관한 事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I. 序 言

石油備蓄은 석유공급이 단절되는 등 석유부족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안정적인 供給을 확보하고 國民生活 및 國民經濟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별개의 것으로 하고, 原油 및 石油製品의 備蓄은 석유수입국과 수출국과의 관계를 不安定하게 만들어 왔다. 즉, 73~74년과 79년에는 備蓄이 油價上昇을, 75~78년, 82~83년에는 油價를 하락시키는 압력요인이 되어왔다.

經濟的인 측면에서 볼 때 備蓄은 수입국과 수출국간에서 완충역할을 하여 양그룹의 利益을 옹호하는 것이다. 한편 實務的으로는 수출·수입국에 있어서 政治적인 協力關係 등 강력한 措置를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備蓄管理者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적정한 時期, 적정한 數量, 적정한 價格으로 매매하는 智慧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石油備蓄에 있어 왜 政治적인 協力關係가 結여되고 있는가? 그것은 石油의 수출·수입국간에 우호관계가 結여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최근에 들어서야 美國, 日本, 기타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備蓄量을 확보하고, 또한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戰略用으로 계속 대량의 備蓄物量

을 확보하려 하는 公共政策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石油安定去來에 대한 선진국의 자신결여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국측의 이러한 石油備蓄 增大는 석유의 全收入을 즉시 사용하기를 원하는 석유수출국과 소비국 사이에 不安感을 일으키고 있는데, 실제로 81년말 이후 소비국들은 緊急備蓄을 OPEC의 油價決定에 對항하는 手段으로 사용하였다. 문제는 세계의 石油市場을 질서있는 상태로 이끌어야 할 備蓄이 반대로 세계 石油去來에 있어 불안정한 要素로 되고 있어 이를 政治적으로 올바른 方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의 与否이다.

즉, 石油의 수출, 수입 兩國에 개재되는 不安感을 拂拭하기 위한 備蓄管理政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論議키 위해 먼저 과거의 備蓄推移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70年代 國際間 石油備蓄

西歐諸國의 石油備蓄에 대한 대응책은 상당히 일찍 이루어졌는데 이는 여러 차례 발생한 中東紛爭으로 인해 석유공급이 불안정하게 된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즉, 51년에는 이란의 石油産業 國有化로 발단이

된 石油紛爭 때문에 이란의 對西歐 석유공급이 대폭 감소된 사태가 발생했으며, 50년에는 수에즈운하의 国有化 선언으로 시작된 제 2차 中東戰爭 발생으로 수에즈운하가 폐쇄되고 동시에 파이프라인이 파괴되고 사우디는 英國 및 프랑스에 대해 石油禁輸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西歐諸国에서는 석유소비를 10~30%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美國의 緊急石油援助計劃에 의해 타개할 수가 있었다. 76년에는 아랍국 이스라엘의 제 3차 中東戰爭(6日戰爭)이 일어나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아랍諸국이 歐美에 대하여 석유수출을 禁止한다고 하는 強硬措置를 취했는데 이때도 심각한 석유위기가 歐美諸国을 덮쳤다.

西歐諸国은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緊急時에 대비키 위해 備蓄을 強行했으며, OECD는 62년에 『內陸消費量の 60日分 備蓄을 4급적 속히 달성할 것, 또한 금후엔 80~90日分の 備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후 71년에는 90日分 이상의 備蓄을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西歐諸国은 備蓄增強에 힘쓰고 프랑스, 西獨, 이태리에선 法律에 의해 石油企業에 대한 備蓄義務를 부과하였다.

石油危機와 비축정책

73~74년의 石油危機를 경험한 후 各國은 備蓄政策을 촉진키 위한 金融과 管理問題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는데, 政府가 안고있는 최대의 문제는 形態가 다른 수많은 石油會社의 부담을 均등화시키기 위해 法的 提案과 국가레벨에서의 備蓄放山戰略에 대한 배려이었다. 74년 2월 13개 석유소비국이 참가한 워싱턴 에너지會議가 개최되어 에너지문제에 대처하는 方針이 검토되었으며, 74년 11월 OECD理事會의 결정에 따라 國際에너지기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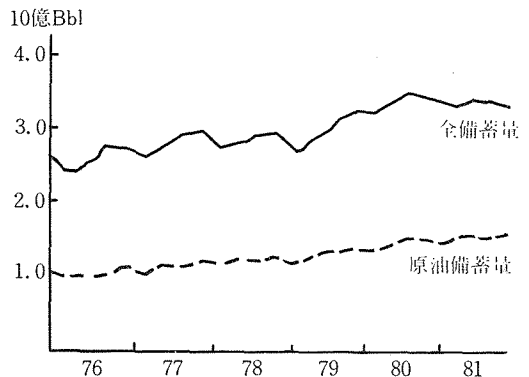
- 긴급시 對策(備蓄, 需要抑制 및 相互融通)
- 관계국에 있어 에너지節約政策의 추진 및 대체에너지의 開發促進
- 에너지에 관한 소비국간의 長期協力
- 산유국과의 協力關係 確立 등을 목표로 하는 國際에너지計劃(IEP)을 추진하게 되었다.

74년 IEA에 가입한 國家의 대부분은 同機構에 의견을 같이하고 10년간 前年 수입량의 90日分 상당의 備蓄量을 갖는 體制에 도입되었는데, 특히 美國과 日本은 義務量인 90日分을 훨씬 상회하는 목표를 세웠다.

원대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있어서는 美國, 日本의 계획도 全世界의 석유수급 구조에 중요한 意義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즉, 석유거래와 油價에 영향을 준 점에 있어선 오히려 石油會社에 의한 備蓄管理側이 政府에 의한 戰略備蓄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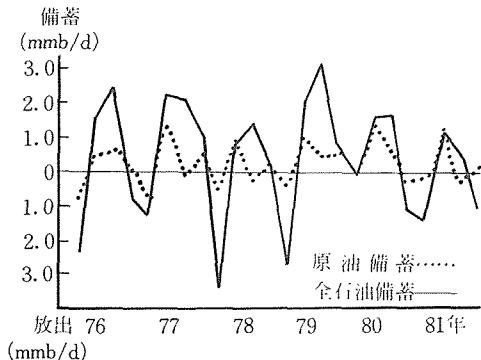
〈그림-1〉은 75년부터 81년에 걸친 OECD의 總備蓄量(原油製品)과 原油의 備蓄量 推移를 보여준다. 總備蓄量은 76년 1/4분기말 24억Bbl에서 80년 3/4분기엔 35억Bbl로 증대되었다.

〈그림-1〉 OECD備蓄推移(76~81)



〈그림-2〉는 期末 備蓄데이터에 의한 OECD의 日平均 備蓄量 증감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이 量은 OPEC의 數個國 產油量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림-2〉 OECD 備蓄量 增加



385만 B/D가운데 200만B/D는 78년 1/4분기에 발생한 동유에 대한 이상수요 증대에 기인되고 있다. 이 시기의 備蓄戰略은 備蓄量을 대개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림-1〉에서 보듯이 原油備蓄量은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즉, 76년말 備蓄量은 10.65억Bbl, 73년에는 11.92억Bbl이었는데, 이 증가폭의 대부분은 美国, 일본, 西独政府備蓄量에 의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石油会社는 왜 더 많은 備蓄量을 유지할 의욕을 갖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근본적으로 備蓄을 보유함으로써 利益이 제고되리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市況이 평온할 때는 政府에서 요구하는 義務備蓄量(美国은 예외)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회사에게 큰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

西独의 경우 義務備蓄量增大에 반대하여 業界는 政府를 상대로 法庭鬭爭을 하였으며 美国도 政府의 지침에 反对氣勢를 올렸다. 이러한 싸움의 원인은 75~78년에 걸친 製品價格 弱勢 때문이었다.

인플레이 때문에 많은 國家에서 소매가격은 인상되지 않았으며, 74년과 77년엔 製品 現物市場價格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75~78년에 걸친 Buyer's market 시대에 石油会社는 備蓄管理를 강화하고, 供給配副問題를 더욱 신중히 취급하여 OPEC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였다. 즉, OPEC의 산유량이 2,500만B/D로 떨어진 76년 상반기에 石油会社는 備蓄放出을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실시하였다. 따라서 石油輸入國側의 빈약한 備蓄政策이나 태도가 75~78년의 Buyer's market 시대에 石油輸出國의 高油價 維持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

Ⅲ. 79~81년의 石油備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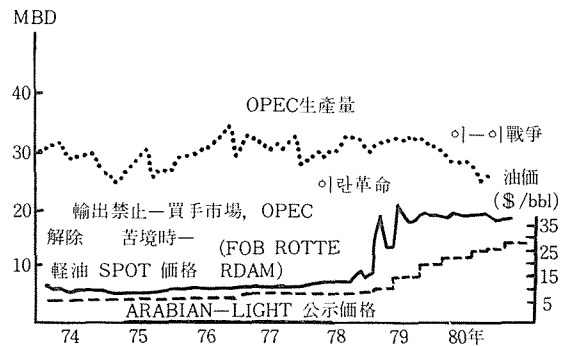
석유소비국들이 장래의 油價調整을 목적으로 備蓄을 사용하는 일에 자신을 가져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즉, 備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油價調整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경험에 의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란革命으로 인해 國際間的 석유공

급 부족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수입국들의 石油危機 以來 축적해 온 긴급용 備蓄으로 실무에 도움을 주는 方策을 몰랐다. 즉, 石油会社는 作業상 필요한 최소한 備蓄(美国, 캐나다) 또는 政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備蓄(欧洲, 日本)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78년 후반에 石油業界가 보유한 備蓄量은 76~77년 備蓄量보다 적었으며, 이란의 수출중단은 備蓄이 허술할 때 발생하였다.

결과 79년에 石油会社는 備蓄水準을 평형으로 유지한다는 75~78년 당시의 전략을 버리고 備蓄量의 증강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石油会社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國家政策으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즉, 實需要가 따르지 않는 수요를 발생시켰을 뿐이고, 自由市場에서 油價를 상승시키는 큰 압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압력의 제일과는 예상대로 구주의 製品現物市場에서 나타났다.

〈그림-3〉 OECD生産量, OPEC價格, SPOT價格 (74~80년)



〈그림-3〉에서 보듯이 原油의 現物價格이 상승하였으며, 價格引上 무드속에서 누구나 OPEC의 公式價格은 반드시 오른다고 믿어 石油会社는 이러한 인상에 대비해서 備蓄量을 증강하는 것이 이익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였다.

석유비축의 증강

결과 備蓄油 放出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회사 가운데는 備蓄의 증강을 서두르는 會社가 많았다.

전에는 備蓄水準을 수년간에 걸쳐 최소한으로

하려 했던 石油會社가 이번에는 전례없이 備蓄油類 購入에 광분했다. 79년 3/4분기에 시작해서 80년 3/4분기까지 계속된 경이적인 備蓄의 증가는 대체로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 石油會社 대부분이 79년의 油價上昇에 따른 수요감퇴 현상을 과소평가
- 石油의 안전공급에 대한 石油業界의 자신감 붕괴, 즉 종래 EXXON, BP라고 하는 國際資本으로부터의 原油購入 상대선이 NIOC과 같은 國營石油會社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공급선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備蓄의 증가를 의도.
- 公式價格으로 대폭적인 상승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79년을 지배한 형세였으므로 備蓄량을 증가하는 일은 유리한 投資이고 유리한 政策이었음.

대량의 備蓄保有가 79년에는 經濟, 政治, 戰略적으로 유리하다고 간주되었는데 80년이 되어 이러한 狀況의 일부가 변화되었다. 즉, 業界의 備蓄량을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몇가지 징후가 보였다.

첫째, 현물시장의 油價安定勢

둘째, 현물시장의 정상수준 회복으로 Independent의 대부분은 79년 유럽시장에서 상실한 기반을 다시 찾음

셋째, 先進國에서 나타난 資本 코스트의 상승

즉, 短期金利는 80년초 8%로 시작되어 13%까지 달하였다가 12월에는 9.5%가 되었다. 이러한 코스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80년엔 備蓄량의 수준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다행한 일이 되었는데, 즉 80년 가을 이란-이라크전이 일어났을 때 높은 備蓄水準 덕분에 市場의 혼란이 發生하지 않았다. 이란, 이라크의 原油를 잃게 되어 가장 심한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日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이태리 및 일부 開途國, 동구제국이었다. 이들 國家에선 政府 내지 그 代表機關은 石油企業의 業務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OECD諸國은 政府가 石油會社에 대해 90日分의 備蓄을 의무화시키고 있으며, 이태리와 프랑스에선 國營會社가 原油購入者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80년 10월초 및 12월에 IEA는 세계 石油市況

에 관하여 토의한 후 회원국에 대하여 현물시장에서의 지정가 매입을 삼가하고 備蓄량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까지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IEA는 81년 2월 현물시장이 평온하고 產油國 가운데 剩餘原油를 판매키 위해 가격을 깎아 줄 것을 제의하는 등 備蓄放出戰略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備蓄油放出이 국제간의 石油供給 危機를 수습키 위한 주요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IV. 最近의 備蓄動向

82년에 들어서도 이란-이라크 戰爭은 계속되었으나 세계가 우려한 것처럼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兩極端이란 것은 직접 타격을 받은 국가(日本, 프랑스, 브라질)에 대해 不安感을 가져다 주었을 지도 모르는 긴급용 備蓄의 급격한 증강이다. 이란, 이라크가 중심이 된 石油市場이 이 兩國家가 개제되지 않은 시장으로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었으므로 많은 國家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여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自由放任(市場機能에 의한)이나 統制機能을 주장하는 國家들은 서로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영하여 西獨, 英國, 美國은 準供給긴박시에 대한 對策으로 自由放任策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統制政策으로 기울어졌다.

各國이 생각하고 있는 政策은 이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80년대의 世界石油市場에 있어 석유수입국이 보유하고 있는 긴급용 備蓄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한마디로 명확치 않다. 현재 세계 各國들이 취하고 있는 備蓄利用政策은 3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1) 美國이 지향하고 있는 穩健派政策

즉, 政府保有의 備蓄은 예컨대 「國際에너지 計副」에 규정되고 있는 것처럼 國家의 緊急事態用으로서만 사용

(2) 프랑스 政策을 반영한 것으로 政策의 개입을 제창

수입국 政府는 備蓄量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油 價의 급등 내지는 공급단절에 대비

(3) 수입국간 토의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으나 市場 介入 主張

즉, 석유수입국들과 토의하여 備蓄量을 대폭 증 가하고, 이에 따라 수출금지시 또는 현물시장 유가 급등시에 自國을 방위할뿐 아니라, OPEC의 油價 決定에 영향력 행사(理想的으론 지배력 행사)

물량적인 측면에서 현재 수입국이 취하고 있는 備蓄 政策을 살펴보면 「穩健政策」下에서 政府의 만족할만한 물량과는 거리가 먼 대량備蓄保有政策 이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OPEC에 대해) 支配力을 행사하기에는 조금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諸問題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石油의 需給 展望, 사우디의 장래 生産能力 등을 전제 조건으 로 하지만,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다음 사항으 로 요약이 된다.

美國의 전략 비축

IEA/OECD의 긴급 備蓄量은 금후 美國의 SP R과 소량이지만 JNOC의 備蓄量 증대로 80년대엔 최소한 5억Bbl 정도 증대할 것이다. 또한 IEA / OECD의 備蓄力을 가지고 세계의 油價에 지배력 을 행사키 위해 IEA 가맹국의 소극적 태도를 도외 시하고 긴급용 備蓄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 가까운 장래 備蓄最低義務 保有量을 수입량 의 100-120일분까지 인상하려는 제안이 나올 가 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義務量達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가맹국들은 이것을 위한 金融負擔을 業界와 함께 나누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위와 같은 提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 다.

業界의 자주적인 규제에 따르는 備蓄—유럽, 日 本에 있어선 最少義務量을 초과하는 備蓄量, 美國, 캐나다에선 최저 조업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은 物量 增減이 항상 심하고 내용도 복잡해서 政府의 指導 力은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고 있다.

80-81년에 보인 매우 높은 수준의 備蓄은 이례 적인 것이며 이런 현상은 금후 수년간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石油輸入諸國은 현재 긴급용으로서 備蓄量을 충 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政府의 備蓄處理計劃達成 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한가지 장해로서는 美國 이 「準緊急」狀況에 개입할 의향을 전혀 가지고 있 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SPR物量이 증대하고 있으며, 政府의 介 入政策을 실시하는 데에도 충분한 양이 되고 있음 에 비추어 볼 때 알맞은 일이다.

한편, 석유수출국들 입장에선 OPEC 備蓄이 그 들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극단적일 것이 아니라 고 생각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즉, 선진국들의 석유비축정책영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며 동시에 수입국들의 독점적인 무기라고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비축물량의 放出戰略

換言하면 정부가 戰略을 구사하고 備蓄을 사용 하는 것은 어느 때는 성공할지라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입국내에서도 「준긴급시」 에 油價의 상승을 억제키 위해 備蓄物量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선 그때마다 물의를 빚게 될 것이란 점이다.

석유수입국들이 備蓄物量 放出戰略에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과거 2년간 輸入國들이 심의한 제안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

同 내용을 요약하면,

- (1) 政府와 石油社間의 特別會議 지속
 - 주요 論点은 본 건을 IEA 테두리내에서 討議 해야 하느냐에 대한 대안을 취해야 하느냐임.
- (2) IEA 改革
 - 현재 IEA의 할당제나 의무제를 살려 緊急發 動의 수준을 인하, 그외 할당/ 備蓄프로그램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改善
- (3) STOCK POOL 提案
 - 各國의 4일분의 소비량을 國際間의 완충용스 톱으로서 釀出

OECD 가맹국이 同提案에 참가하는 경우 卍을 保有量은 1.3억배럴이 되며, 어떤 特定 地域의 부족이 선언되지 않는 경우 石油不足 에 타격을 받는 나라는 備蓄量의 50, 66, 75 %를 한도로 하여 購入價格을 취득

(4) 会社마다의 備蓄꾸을

—各会社가 5일분 상당의 石油를 中央機關에 매각, 공급부족이 일어난 경우 직접영향을 받은 会社는 전기의 平均價格으로 石油購入價格 취득.

(5) 緩衡用 備蓄

—(3)項과 다른 점은 수출국의 참가를 요청하고 있는 점임.

즉, 市場이 평온할 때에 備蓄을 늘려 市況이 긴박할 때 備蓄物量을 방출

(6) EEC에 의한 提案

—81년 10월 閣僚會議에 제시된 것으로 EEC는 市場強勢 때에도 義務備蓄을 90일 이내 85일 분으로 감축.

이 制度는 가맹국내의 여러국가(会社)가 다른 국가(회사)보다도 급속히 備蓄을 방출할 필요가 있을시엔 다른 여유있는 諸국이 불균형 영향을 받는 諸국에 必要量을 제공하여 備蓄事態에 변화를 방지하는 보증을 요구.

이러한 추이속에서 IEA의 備蓄水準는 계속 증가(78년 120일분→83년 10월 172일분) 하고 있으며, 需給의 완화추세에도 불구하고 國家備蓄目標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즉, 83년 5월에 개최된 IEA 閣僚理事會에선
• 단기적인 동향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장기적으

로 市場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現石油市場의 약세 때문에 이미 설정된 에너지政策目標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 石油는 금후에도 에너지중 대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安全保障을 제고시키는 努力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 各國의 전반적인 긴급시 準備對策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V. 今後 備蓄政策의 改善方向

石油市場은 예측할 수 없는 供給不足事態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油價暴騰時에도 그것에 대응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긴급시에 대처하는 備蓄放出과 증가는 國際石油業界의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고, 석유수출국과 수입국간의 協力體制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石油市場에 대한 備蓄管理에 관하여 정치와 경제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政府는 戰略備蓄의 확보에 대해 國內支持를 얻는 일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市況이 약세일 때에도 備蓄을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市況이 꺾박하여 供給不足이 발생하면 政府는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거나 악화된다고 하는 판단도 없이 備蓄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備蓄을 증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業界의 備蓄管理對策도 政府와 마찬가지로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즉, 市況이 逼迫하면 高金利에도 불구하고 油價暴騰을 예상하여 備蓄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고 金利面의 財産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하여 業界는 1980년 가을 이란—이라크 전이 勃發했을 때 現物油價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備蓄을 늘렸다.

마찬가지로 81, 82년엔 油價는 약세였고 金利는 높고 備蓄油 연간 관리비가 油價의 25%가 되고 있는 가운데 剩餘備蓄을 안고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政府, 業界 어느편도 그 備蓄管理策은 市場의 유가변동을 부채질했을 뿐이다.

〈日本, 西獨, 美國 備蓄政策의 比較〉

	日 本	西 獨	美 國
民間 備蓄	石油精製業者等에 90日 備蓄義務 부과	石油備蓄協會 65日分 (共同備蓄) 石油精製業者 25日分	備蓄義務 없음
國家備蓄 目標	3,000萬Kℓ	1,000만톤 (1,200萬Kℓ)	1990年 7.5億Bbl (1.2億Kℓ) 長期的으로는 10억 Bbl (1.57億Kℓ)
	現狀 原油 1,251萬Kℓ	730萬톤 (860萬Kℓ)	原油 2億9,300萬 Bbl (4,670萬Kℓ)
備蓄現狀 (IEA方式日數)	6,553萬Kℓ (製品換算) (109日分) (83年 5月末)	4,700萬Kℓ (3,980萬톤) (133日分) (83年 4月 1日)	2億600萬Kℓ (1億7,620萬톤) (300日分) (83年 4月 1日)

IEA의 國際間緊急時政策(International Emergency Program)은 긴급시에 대비하여 IEA 회원국 간 備蓄量 및 剩餘分을 분담할 것을 요청한 것이지만 緩衝用備蓄의 문제를 만족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30인 위원회는 備蓄管理政策을 市場의 효율과 안정에 사용키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案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긴급시에 있어 대량의 石油不足에 대처키 위해 戰略備蓄物量의 취득, 유지, 사용을 가능케 하는 備蓄管理政策의 설정, 특히 産業界의 비축과 政府의 戰略備蓄을 명확히 분리한다.

둘째, OECD 政府는 市場약세일 때 石油會社가 商業用備蓄物量을 여유있게 보유하고, 市場이 호황일 때에는 政策을 政策內에 도입.

이 대책중 하는 緊急不足事態時에도 이 備蓄量을 동결치 않는다는 政府의 보증이다.

셋째, 供給不足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供給停滯가 일시적인지의 與否가 확실치 않을 때—OECD 政府는 業界가 政府의 지시로 취득한 商業用備

蓄分중 며칠분(90일보다 적은 65일정도)을 방출하여 備蓄去來를 하고 現物市場에의 압력을 약화시키도록 지도.

네째, OECD 政府는 市場의 恐慌시에 戰略備蓄分을 처분하여 市場에 개입할 감시정책과 절차방법을 입안.

긴급사태시 油價安定을 위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戰略備蓄을 사용할 것인가에 고심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政府는 많다.

石油備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石油供給斷絶이라는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수급,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상에서 본 OECD를 중심으로 한 石油備蓄制度의 개선움직임은 이제 石油備蓄을 시작한 韓國經濟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備蓄物量의 증감 및 방출을 위한 효율적인 機能否與가 선결될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

〈週刊 石油뉴스, 84. 3. 7〉

□ 海外石油産業動向 □

日本 注油所 크레디트카드販賣

日本石油・共同石油, 4 월부터

日本の 석유업계는 오는 4월부터 주유소에서 크레디트카드판매를 시작함으로써 주유소에도 크레디트카드時대를 맞게 되었다.

日本石油과 共同石油은 각각 금융계와 신용판매업계의 大型 크레디트카드회사와 제휴, 오는 4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크레디트카드판매를 개시하며, 丸善石油, 三菱石油등 다른 석유회사도 앞으로 크레디트카드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日本の 석유업계는 지금까지 카드판매를 해왔으나, 이는 自社카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업계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 大型크레디트회사가 제휴, 일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크레디트판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확대와 함께 주유소업무의 효율화도 기대되고 있다.

크레디트카드 1회 이용한도액은 10만円이다.